

#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 정책별 권리 이행 방안 모색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책 토론회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정책 논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가 올해 발효됐지만, 국내 장애인의 권리 이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들에 대해 시설 수용을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장애 여성에 대한 정책은 축소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여전히 행정·사법 등 공공기관에 가까이 가기 힘들다는 것도 원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광주장애인권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공동으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 정책별 권리 이행 방안

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장애인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여성·장애아동·가정, 생명·사법·신체적 자유·존엄성, 노동·고용, 착취 및 학대·가할 및 재활·적절한 생활 및 사회적 보호 등 협약의 각 부문별 장애인 권리이행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해란 한국장애인포럼 활동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3차 최종 견해와 국내 이행'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의 국내 이행을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정 활동가는 "이번 최종견해 발표는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선택의정서가 지난 1월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장애인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되면 유엔장애인단체 위원회가 나서 조사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활동가는 이어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제시한 '탈 시설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예산과 탈 시설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희 장애여성성감 대표는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장애여성·장애아동·가정)'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장애 여성 교육 사업인 어울림센터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통합·축소됐다"면서 "장애 여성에 관한 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이소아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법률 대응을 통해 본 장애인권리협약·사법 접근법을 중심으로(생명·사법·신체적 자유·존엄성)' 주제의 토론에서 장애인들의 행정·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창조 노들장애인공리소 연구활동가는 'UN CRPD의 장애인 노동 권고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노동·고용)'라는 주제로, 박찬동 광

주시 장애인권옹호기관 관장은 '대한민국! 차별+학대+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은 지키자!(착취 및 학대·가할 및 재활·적절한 생활 및 사회적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국내 작동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 보호와 증진 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발효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 권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 등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유엔에 권리침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개입통보' 등을 규정된 선택의정서는 계속 비준하다 지난해 말 비준하고 올해 1월부터 발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복달임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요"  
저소득 세대에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광주시 북구 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초복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건강한 복달임을 기원하며 돌봄이웃과

<광주시 북구 제공>

## "멸종위기종 '수달' 지켜주세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덕홍보 인근서 발견... 보호활동 참가자 모집

영산강 덕홍보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사진>이 발견돼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수달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 덕홍보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수달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영산강 일대에서 수달 서식지 다수를 발견한 단체는 영산강 덕홍보(유택IC) 인근에 설치해 둔 관찰카메라에서 수달의 모습을 담았다.

이에 단체는 수달 보호활동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2023 수달 안전신고등 시민 액션팀 수비수달' 참가자를 모집하고 수달 서식지 및 로드킬 현황 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활동은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호와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며 시민 참여 장기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에 살고 있는 수달의 서식 환경과 로드



킬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8월~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민이라면 나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062-514-2470)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 환경부, 여름휴가·방학기간 '소담휴' 프로그램 개최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체로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1일 "여름 휴가 및 방학 기간을 맞아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소담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담휴'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 8개 기관 17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장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에서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1박 2일 섬(鳥)스텝' 프로그램이 열린다. 섬 탐방 방식으로 펼쳐지며 초등학생 동반 가족단위 25명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1박 2일간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를 방문하고

2차 일정은 8월 5일부터 1박 2일간 신안 자은도를 찾는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1.5도 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광주·전남지역 환경사랑홍보관과 생물자원관 등 8개 환경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기후변화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먼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대국민 계절 보물찾기(여름 편)'를 실시한다. 추억의 방학숙제를 콘셉트로 전국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을 영상·사진으로 채집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 '캐드'에 접속해 해당 영상·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작은 누리집과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디인 기자 kdi@

## 광주 서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권동식아벤티노재단과 민·관 이웃사랑 협약... 월 20만원 지원

광주시 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구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60%이상 최고 100% 이내의 청소년 부모들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녀돌봄과 생계유지, 자립활동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

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66만원)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는 일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정부 지원 기준을 충족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안고 일하는 청소년 부모는 근로소득 초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구는 11일 사회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과 '청소년부모 아이 함께 키움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이웃사랑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모니터링, 수당 지급 등 행정지원 전반을 담당하고, 권동식아벤티노재단은 청소년 부모들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한 청소년 부모들은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며 "서구형 청소년 키움수당을 통해 보다 안정적 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거문도에 국립공원 해양 기후변화 연구시설 개소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에 해양 기후변화 조사 및 관측을 위한 연구 거점시설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주시 삼산면 거문도에 설치된 이 연구 거점시설은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이후 국립공원 내 두번째로 마련됐다.

거문도 연구 거점시설은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됐다.

최근 다도해 일대(거문도, 여서도, 소알마도 등)에서는 해수온도 상승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발견되던 아열대성 해양생물이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 90km 가량 떨어져 있는 등 원거리 도서지역으로, 대마 난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 해양 기후변화 조기 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연구 거점시설에서는 해양 환경관측과 해양생물 변화관찰 등을 진행한다. 수심 10~20m 지점의 해양환경을 측정해 1년 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심 20m 지점 산호초류 군집변화 관찰과 원거리 이동 고래류의 출현을 관찰할 계획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